



# 나무의 호흡

김선희 시집

도서출판 숨쉬는 행복

바다는 나에게 한 해를 쉬라 하는데  
대지는 나에게 한 해를 걸으라 하는데  
동행한 거리는 오랜만의 여유였는데

나무의 호흡

김선희

# 나무의 호흡

출간일 2017년 4월 24일

지은이 김선희

출판사 도서출판 숨쉬는 행복

ISBN 979-11-88233-36-6

판매가 8000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902동 616호(하계동)

[blog.naver.com/2051426](http://blog.naver.com/2051426)

© 김선희 2017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7010106)

## 차례

프롤로그 .....	9
어느 거리에서 .....	10
롤러 브레이크 .....	11
방향 .....	12
너에게 가는 땀 .....	13
어느 공원 .....	14
과연 있었나.....	15
위험한 관계.....	17
사기 .....	19
그늘 탑.....	21
세탁기.....	23
집마다.....	26
욕망 .....	27
슬픈 연.....	29
나이 .....	31
과일 나무 .....	33
허기진 세상.....	34
고속 전철 .....	36
멀어져 간 사람 .....	38
눈 .....	39

임신부.....	41
한 꽃.....	46
그냥 쓰기 위해.....	49
카페.....	53
못다한 사랑.....	55
빈 마음.....	57
어느 밤.....	58
전화.....	59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	61
정글 숲.....	62
청과동 낡은 집.....	63
빗소리.....	64
장마.....	65
출근 시간.....	66
천삼백 원의 하루.....	67
인생 지하철.....	68
그대를 보낸 후.....	69
연기자.....	70
집 짓는 마을.....	72
변해 버린 시대.....	77
빨간 펜.....	84
라디오.....	87
그림자.....	89

흰 진주 알.....	92
편지 .....	93
사랑한다는 내겐.....	94
속마음.....	95
시집들.....	97
어머니.....	99
제비꽃.....	100
의미 없는 집만 짓는 거미 .....	101
도심 속의 자연 .....	103
여름이 올 때마다.....	105
거북이 노래.....	108
한 여름 귀뚜라미로 남으렵니다 .....	110
나의 침묵 .....	111
비 그치고 .....	112
팔월의 시 십이월의 시.....	113
두 손 모으고.....	114
일월 .....	115
삶의 이력서.....	116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길래 나를 재는가.....	118
제비들처럼 왔다 제비들처럼 가리라 .....	120
인생 .....	124
추억하나 .....	125
장갑 .....	126

자작나무 .....	127
모성 .....	128
옛 숲 터 길 .....	129
목이 길은 짐승이 내게 하는 소리 .....	130
종소리 .....	131
질투 .....	133
묘비 없는 비목 .....	134
하늘과 나 사이에 .....	135
헤어질 때 말없이 .....	137
일개미 .....	138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들 .....	140
소금만 남은 바닷물 .....	142
젊음이 다한 어느 날 .....	144
나무 그루터기 .....	145
봄을 아는 이는 있음을 안다 .....	146
나의 나무는 죽지 않는다 .....	147
자유롭다 .....	148
슬픔 .....	150
태양아래 세상 .....	151
작별 .....	153
꿈 섬의 돛을 잡아라 .....	155
에필로그 .....	157



## 프롤로그

살아서 느끼는 아픔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일상에 지쳐 어디론가 향하고 싶은 마음에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바다에서 나무 그늘에서 호흡합니다.

고운 마음 고운것들로 채워가야 하는 인생길이 축복임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것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기에 고요한 마음을 담습니다.

## 어느 거리에서

바다는 나에게 한 해를 쉬라 하는데  
대지는 나에게 한 해를 걸으라 하는데

동행한 거리는  
오랜만의 여유였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은  
눈물만 흘리네

들은 나에게 숨을 쉬라 하는데  
하늘은 나에게 바라만 보라 하는데

가로등 홀로 꺼지는 거리는  
홀로 누운 빈자리에  
눈물 자국만 묻히네

## 롤러 브레이크

폴린 다리는 네 바퀴 도는 소리  
소녀 시절 달리는 꿈들의 소리

지친 호흡에 바다 치는 소리  
소녀 시절 해엄치고픈 사랑들의 소리

달리다 바라보다 멈춘 한길  
집은 가다 쉬고 사람은 멈춘 세상  
폴린 다리에 바퀴 달고  
지친 호흡에 가슴 열어  
끝없이 달리자 한  
선 된 네 바퀴

## 방황

머물 곳이 없었나 이 천지에  
다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소리 없는 호흡에 숨을 토하며  
해감 삼키는 발자취를 따라  
나 다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머물 곳이 없었나 이 천지에  
가고파라 가고파라 슬픈 이슬  
구르다 구르다 내가 떠나고 싶다

머물 곳이 그리 없었나 슬픈 나뭇잎  
나 다시 너른 바다로 홀로 떠나고 싶다

## 너에게 가는 덧

이 시대의 적막한 사막 안  
낮선 창에 기대어  
낯 모르는 이 앞에서 벌려 저친 두 다리  
짱그려진 이맛살  
마음은 너에게 무엇을 말했던가  
순결하다고  
시커멓게 타 들어간 동맥 속  
끓는 피는 살아 있노라고  
슬픔을 마시고  
눈물을 마시고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싸워온 순결의 덧에서  
한 모금의 이탈로  
시대가 변해 버린 마음 없는 뜰 안  
이젠 그곳에서 나는 잠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랑이라는 덧

## 어느 공원

개암 하늘 피는 새벽  
뜨거운 실핏줄  
홀로 편 밤들의 굽주림  
끝내고만 한 움큼의 살 비린내

소리 내어 외치고 싶어  
고독을 삼키는 허기  
안전한 이슬들의 노래  
달콤하게 흐르는 방울들

일렁거리다 솟구치는  
강가의 풀들  
촉촉해져 가는 몸들의 열기

아침은 해 없이 붉게 타다  
정오를 맞는다  
뜨거운 하루

## 과연 있었나

오는가 또 다른 만남 이별  
타는 아스팔트  
식다 만 마음  
닫히다 열다 문 입술에  
깊은 오열의 합창을 토하듯 맞춘 호흡에  
사랑이 차 있었나

초생 달 달 그을린 안개 속  
몰래 만난 한 남자의 특정 어린 말투  
보채다 지쳐 잠든 아이들의 숨소리  
피곤하여 넘어선 안심의 그늘  
어쩌면 그곳에 사랑의 싹이 틀 수 있었나

마음 한복판에  
어제 지운 사랑이  
오늘 간절한 마음을 키우듯  
더듬거리는 소리  
주저하는 맘보다

다른 길로 가는 맘이 더욱 한심하였나  
열지 못하는 문 자락  
다른 모습들로의 환영  
꿈은 내게 사랑이라 부르라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으리

죽은 만큼 외쳐보면  
죽은 만큼 그리워 보면  
그 사랑은 내게 올 수 있었을 것을  
성난 이빨자국  
쳐든 눈자위의 화로  
타오르다 타오르다  
한 점에서 살 드리운 사람들  
만날 수 있으려나  
그리운 것들  
그리운 것들  
토 하나로 타다 세운 한밤의 사랑  
고개 숙이며  
자신을 타 재 끼는  
사랑이 오려나  
그런 사랑이 있었나  
과연 머물 수 있으려나

## 위험한 관계

사라져가라 침묵아  
가인과 아벨의 침묵아  
솔로몬의 지혜가 흰 칼을 세우고  
저울질 하는 시대에 한 창녀를 만나  
한 아이를 낳고  
아비라 불리고

어리다 성장한 자  
그 아이가 자란 동사들의 수다가  
잡든 세상  
다 다 다 다

구름 낀 기억에 울며 짜며  
잡든 이에게  
하루의 배신을 삼키며 토해낸  
열정의 밤이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며  
허무의 힘을 토해내듯

다리와 다리 사이에  
높지 못한 구름만 끼어  
관계를 맺는다  
붉은 핏덩이  
씻겨 내린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검다 희다 누렇다  
허무 그리고 무가치  
외치다 다문 침묵아  
부르짖다 다문 침묵아  
찾지 못한 것들을 달라고  
몸은 아직도 세상에 있다

## 사기

이혼한 줄 알았던 그  
그러나 몇 번이었나

진달래 피면  
개나리 피면  
이혼한다고  
그러나 몇 번이었나

부르주아  
페미니스트  
남과 여  
쓰련다 가르다  
삶이 머문 연결 행줄 따라  
그러나  
정열은 정열은  
새싹에서도 돌아나지 않는다

이혼한 줄 알았던 그  
그러나 몇 번이었나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사르란 소리나  
말라는 소리나  
준다는 소리나  
만다는 소리나

분담된 고통  
속아주는 사람들  
알며 가는 삶들  
울음 두 방울

## 그늘 탑

배반의 그늘

충분히 높지 않은 탑

인생은 가다 한곳에 멈추어 섰다

하늘을 잇는 계단은 입술과 입술의 숨을 몰아 쉬고

한 다리를 두 무릎으로 힘있게 밟아

살도록 살도록 그리워 보지만

창문 연 놀이터 그들은 잠자리채 흔드는 깃털처럼

뽀얗게 흐릿하게 채인 한 마리 죽은 날개처럼

잠든 여름의 사체로 남는다

벌레 울음도 침묵으로 끝날

벌레들의 유산

간밤의 울다간 흔적도 메마른

배반의 그루터기들이 옹기종기 모였다

멤돌다 멤돌다 비계 낀 듯 잔뜩 영킨

구름 풀어 놓은 생각들이 나르는 현실의 암흑

몽개라고 한 기억이 솟구치지만

높지 않은 하늘이 맞닿는다고

땅 보러 뭐라 하니 생각도 맴맴 도는 매미들의 나무 떼처럼  
휘적거리다 한 그늘에 의자 품고 앉아 있다  
배반의 갈잎 푹푹 따내면서 여름은 그늘을 달고 간다  
안식의 탑 안으로

## 세탁기

시대가 갈팡질팡 거리는 바다에서  
삶을 버리라 했다  
사랑이 갈팡질팡 거리는 바다에선  
사랑 그 자체를 버리라 했다

논리도 없는 것이 홀으러 틀린 예언의 숲  
통통거리며 살진 밤을 깨물며  
하루가 목마름으로 피어 오르고  
허망한 소리들의 웃음 채널이 된 여름 밤  
뜨거워 지는 욕신이 땀구멍을 열며  
호흡하고자 매달린  
마지막 목마름을 향한 절규  
서른을 통과하면서 종알되고 끈적거리는  
현실의 세탁기  
확 돌려 말아 버리고 싶은 사체들의 말장난  
피곤이 몰아 되고 밤이 몰아 된  
감겨진 눈을 깔 데기 하나로 치켜 뜨며 메어둔 아침  
빈 들녘에 남아 파헤쳐진 무덤가처럼

하얀 그림자들만 우굴 거리는 말 못하는 마을  
손으로 목을 휘감고 숨이 막혀 울부짖는  
망자들의 영혼처럼 우리네 시대는 도둑맞은  
첫사랑의 겨울을 울고 또 울고 헤치며  
기억을 망각으로 세월을 등져가며  
망충망 처진 창문 안으로  
자신의 달을 숨기려 자신을 감춘다  
통과하고 있는 여름 오후 헉헉 되는 풀벌레 소리는  
스스로 닫힌 등뒤의 풀벌레 우는 소리처럼  
제발 이 밤을 홀로 가자 홀로 가라 한다  
귀 바깥에 윙윙거리는 날 파리들의 음성에 자다 깬  
사체모양 눈만 깜박깜박  
한 부엉이 부르짖다 잠든 새벽녘처럼  
더욱 위험할 것 없는 밤은  
이름 모를 귀신들로 인한 인산인해  
위험 모르는 땀만이 흐르고  
행구다 만 세탁기 위의 소음은  
말없이 붉은 불만  
반짝거리다 잠드네  
볼 것 없는 아침 신문에  
거짓뿐인 세상에서 예언자들이 마시는 술 한잔을  
백두 새벽부터 마시며

입가에 매단 침 한 방울  
꿀꺽 삼키다 뱉고  
총 천연색의 고해의 계절을 지나  
속죄 받고자 했던 모든 상황을 화 킴에 쏟아  
욕이나 해보고 썰다 만 파도에 스스로의 몸뚱이를 담고  
끓어 오르는 산등성이를 시퍼렇게 넘는  
바람 잔에 담아  
조금씩 자주 흔들며 속을 마르는  
빨래자락에 마지막 정열을 쏟아 부어 짜내면  
꼬깃꼬깃 찌그러들고 쭈그러든 장미 빛 인생들  
탁탁 털어 널리는데  
시대를 잃어버려  
사랑을 잃어 버려  
하늘 높이 날리라고 걸어둔 빨래집게 하나 둘  
나도 더불어 집어 나르라 한다  
맹벌들의 호흡에 말려  
타고만 정열  
떨어진다 떨어진다  
바삭 한 새날들의 호흡으로

## 집마다

도토리 알만한 것이 근심 굴러다니듯  
평생 당신들의 심장에 맺혀 떨어지듯  
움푹 패인 광대뼈들의 언어  
쑥쑥 잘 자라나는 영근 영들의  
뽀얀 하루  
토끼 귤가에 붉은 당근 매달 듯  
태어나 자라는 당신들의 꿈  
땅 밑에 튀어 밟고  
새살 돕는 곱게 커가는 아귀들의 웃음  
굴리듯 굴리다 멈춘  
어느 집 문간  
아비 어미들의 꿈  
아들 딸들  
누런 나뭇잎들

## 욕망

졸린 눈 치켜 뜨는  
지금이라는 밤중  
검은 천  
짙 삼은 지붕  
기척 없는 마을  
혀 자락 내민  
굴뚝들의 연기  
껍질뿐인 삶에  
말아 올린  
연두 잎 자락  
인삼들의 졸린 눈  
네 피 말고  
네 맘 말아  
뼈 살 깎는  
그림자 드린  
아 예 둥지에서  
네 몸 안의 열기를  
내 몸 안의 피로 받아

뱃속까지 끌어 올리는  
붉은 열기를 안아  
흰 칼집에 넣으니  
자신들의 욕망  
어둠에 익숙하도록  
준비된 몽우리  
터뜨려지듯  
인생의 길을 들킬세라  
기다리며  
무섭게 다가서는  
새로운 길에 나도 몰래  
소리 없이  
가까이 웃음  
주름 잡힌 이마에서  
빛이 되어  
남더라

## 슬픈 연

사랑하고프다 그대여  
눈물 젖은 메마름을 흠치며  
헤엄치고프다 그대여

나의 인생에도  
너의 인생에도  
한번쯤  
생겨 먹은 목적들이  
바람불어 흩날리듯  
노란 잎새에  
말려 날리겠지

가을이 스잔한 이유는  
갈대 숲에서 흔들리는 비  
바람들의 뉘 임들을 알기에  
남자와 여자가 속살 섞이듯  
그 속에서 시리도록 아프겠지

홀로 남겨진 이는  
너른 들의 갈대들처럼  
혼자 흔들리다  
바람이 쉬어가면  
나도 같이 잠들다 가겠지

나의 젊은 이마에도  
너의 젊은 이마에도  
언젠가 생긴 주름들이  
노오랗게 퍼지어 갈 때  
스러지는 아쉬움 뒤로  
한숨 쉬어 보겠지

아직은 사랑하고픈 그대여  
두 볼에 흐르는 눈물이  
말없이 흐르는 그대여

## 나이

한 해가 나를 위해  
또 한 해가 나를 위해  
준비되고  
거울처럼 비추어진 얼음장들이  
한 켜씩 녹아 날 때  
단단하던 몸들은 늙어 가고  
마르다 여문 가슴은  
추억에 말려 떨어지듯  
쭈그렁 거리는데  
살 떨리던 만남들이 그리워지는 약속  
열망들은 사라져 가고  
까칠한 껍질에  
땀 빗마저 저가는데  
애타는 정오의 빗질은  
흰 새치만 키우다  
삶아 먹는 감자수염 끝에 매달려  
질긴 삶만 찬탄하며  
몽클한 세상을 삼키는 질긴 시간에게

안식을  
평안을 달라  
나에게 애원하는 이여

## 과일 나무

매실은 수박의 시원함을 알까  
수박은 굴의 시쿨함을 알까  
태양 찌는 포도는 한 계절을 늘어뜨리고  
만만하게 살아가는 삶들을 알까  
한 송이 알 알들을 깨물며  
붉은 보라의 혀 바다  
쭉 내밀며  
시큼한 한세상을 몸으로  
삼김을 알까  
녕쿨 숲 녕쿨 나무  
그곳은 어느 소녀의 휴식처

## 허기진 세상

취할 만한 세상  
망사선 같이 퍼진 마음  
칼날처럼 얹혀진 마음  
퍼지고 깨지고  
지킬 수 없는 사랑이  
지하철 안의 군중처럼 깔깔 되며  
웃는 세상  
백지처럼 하얗게 지우고  
시작되는 방 밖의 세계  
빛이 나면 가끔 내다보고  
햇별이 흰 이불을 뜨겁게  
안으면 내다보고  
매일 되풀이 되는 일상의 침상에서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일삼으며  
술 없이도  
취할 곳  
누군가와 싸워도 보고  
치열하게

인대도 해 보고  
스스로를 다스려도 보고  
자신을 난도질해 보고  
활기 기도 하고  
부서져라  
깨져라  
상체기도 내어 보는  
한 사람의 마음에 지쳐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싸운 날들  
아무리 마셔도 술이  
취하지 않은 세상에서  
나는 또 취하고 있다  
술 없이도  
취하고 만다

## 고속 전철

아지랑이 미끄러져  
피어 오를 시간의 레일  
땀방울들이 이어 내려  
팽팽한 선을 만들고  
달리고 달리는 어느 열차  
가까운 나무들이 일직선상에서  
먼 구름을 멈추게 한  
도망 갈 수 없는 현실  
먼 산  
오를 수라도 있다면  
아물아물 피어 오르는 봄날의  
아지랑이 되어 퍼질 것을  
인생도  
더듬거리다  
허우적 되사  
흔들거리다 정지한 정지선처럼  
그럴 때가 있다고  
차창 밖 구름들은 말한다

못난 잔폴들  
총알처럼 지나간  
그 속  
나와 네가  
우리가 있는  
시름 있는 이곳  
바깥 세상도  
전선 자락에 걸터앉은  
새들도 놀라 떠난  
종착역에서  
무심히 내려 앉은 하늘  
가까웠다  
멀어져 간 사람  
그는 누구인가

## 멀어져 간 사람

삼십이 넘어선 자리  
물거품 되어 사라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꿈도 소망도 아니었건만  
그 타래가 버거워지기 시작한 순간  
혼자만이 선택한 길마저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  
살 맞대고 물어 뜯던 밤 창에도  
부스럭 부스럭 엿보던 눈빛들  
까망 동공들의 수많은 관심들  
그 속에서 고통들도 고통끼리 정 붙어  
희망과 절망을 넘나드니  
하늘도 바다가 되고  
쫓고 쫓기던 늙은 추억들도  
현실 앞에 쏟아진 태풍처럼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지금  
남의 땅이 되어버린  
천지간의 섬마을  
홀로 떠 있는 나룻배 하나

## 눈

첫눈이 온다고  
미처 피할 수 없는 자리엔  
숨털들이 쌓인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듯  
미처 도망가기도 전에  
겨울이 덮쳐  
깊고 푸르던 하늘을  
회고 만 세상으로  
만든다고

소리치며  
몸부림치며  
지내오고 있는 이 아침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삶들이 꼬물 된다고

네기 이것을 미쳐 피하기도 전에  
한번 힘차게 싸워보기도 전에  
붉게 물들어 버린  
단풍들의 순수처럼  
천지간을 휘감고  
돌아 버린  
젊음의 덧이  
미쳐 피할 새도 없이  
와 버렸다고

한 개울 숨 눈들은  
가는 길에 소로히 머문다고

## 임신부

달이 찾다

초생 달

등근 달

0000년 0월 0일

태어날까 말까 망설임 없이

걸어차여 내민 머리통 하나

힘차게 울던 기억

나는지

무 기억 기억상실증

그곳은 그렇다

바다 속 같은 자궁 안

어른이 되어서도

숨쉬고 있는 이곳에서

갈 곳 없다

할 것 없다

무엇을 해야지

고민하는 변민들의 흰 머리칼

한 가닥 한 가닥 늘수록  
마모해 가는 동전 한 잎 한 잎

달이 차고  
달이 차도  
변함 없는 건  
받은 적 없는 지폐 장들  
녹슬어 가는 몸살들  
폐동맥이나  
관 동맥 이나  
실 핏줄이 시퍼렇게 섰다 지는  
분노들의 합창도  
실밥 터지듯 벌어졌다  
잠드는 한 봄밤의 목련 꽃처럼  
이를 악물었다 간  
흐드러지게 떨어지고 마는  
심장 속의 붉은 피  
고이고 고이어  
불룩해진 어느 어미의 배처럼  
그곳은 그렇다

국수자락처럼 험땃거리며  
내놓은 혀 자락  
스물을 갓 넘긴  
미혼모들의 아이들  
달이 찾다  
꺼내어 졌다  
대책 없다  
어린 부모  
무기력 무 사증  
허탈하다  
허무하다  
칼날 서리듯 상처받은 그곳  
그곳은 그렇다

갑자기 멀어져 간 태산처럼  
멀어져 간 사람  
그 길이 다가서기엔 너무 멀어 보여  
잃어버린 성긴 사랑  
한 여름 달 찬 밤에  
살얼음 된 마음  
다가설 수 없는 무게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한 짝

그것만 주어 들고  
세월만 보내는  
정오의 시계 침  
울리다 울리다  
그만 타인된 임산부

지금은 초생 달  
내 길은 반달  
보름이 되면 차리라  
나오리라  
허기진 꿈들이 남은 자리  
덜고 일어나 악스리  
걸음 땀 때마다  
끝 가시 찢리듯 더 푸르게 푸르게  
사계절을 밝힐  
소나무 잎새처럼  
술 되어 하늘 달 토끼 되어  
수 백 년을 수 만년을  
그대로 비추리  
그곳은 그렇다

변하지 않을  
어미 된 자처럼  
내가 가도  
타인이 가도  
세월이 가도  
그곳은 그렇다  
불록한 삶  
그곳은 미래로 가는 가느다란 꿈

## 한 꽃

삼 년이 가 버렸다  
청춘의 덧  
푸른 잔디의 꿈  
소망 있던 자리  
먼지가 쌓이어  
보이지 않았다  
안개 마디에서도  
말갱게 솟아나던  
하얀 초롱 꽃들의 합창처럼  
매일 새롭게  
시작하라고 종을 울리던 그곳에  
참진 이슬 두 방울  
만개 수 앞에서 흘렸다

따라가는 그림자 밝기는  
하기 싫어  
먼저 가고 만 자리  
뒷자리가 앞서 간 자리 앞에서

그 구슬 같은 인고의 방울들은  
두 손 끝에 매달려  
짠 소금 되어 마르고  
길고 큰 바다 속으로 말려들고 말았다  
바다가 쓸어가 버린 절망  
홀홀 벗고 일어나라  
묻어낸 지친 이불 속에서의 마른 눈물들  
물혀 버리라고  
미친 척 쌓아 올린 추억의 벽돌 장  
부딪혀 뚜드려 봐도  
부서져 내리는 작은 파도자락처럼  
없어지고 마는 소리들의 열매  
비석처럼 꽃혀 움직이지 않는  
한 무덤가의  
때 찾은 할미꽃 피어  
한줌 흙으로 돌아가  
다시 잠들고  
다시 꿈꾸고  
인내하고  
말없이 걸어 가라고

앞 선자들의 숙명  
뒤 선자들의 이기심  
모두 바다가 되고  
흙이 되어  
전세상 후세상을 넘나들며  
말없이 걸어갈 자리  
모든 것은 사라져가도  
한 꽃만은 남겠지  
나 라는 꽃

## 그냥 쓰기 위해

그냥 쓰기 시작해  
그냥 만나기 시작해  
그냥 살기 시작해  
질서 없이  
따지는 것 없이  
강물이 그냥 강 따라 흐르듯  
높은 산이 그냥 높게 솟아 일 듯  
기어 오르듯  
순서 없이 그냥 그대로

나의 봄  
나의 사랑  
나의 마른 목마름들  
하늘 들 강 바다  
바람에 날고 있는 구름들  
유난히도 깊고 푸른 창  
봄의 가을  
푸짐한 열매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그냥 바라보는 대로  
가난하여도  
부유하여도  
참아 다가설 수 없는 이에게도  
먼 거리가 망각의 강을  
만들듯이  
멀어져 간 사람에게도  
되돌릴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그냥 알아가는  
여물어가는 알들의 자리  
땅으로 묻히는 흙들의 소리

나의 봄  
원래 나만의 것이었던 것들  
나만의 지식들이었던 것들  
나의 하늘 들 강 바다  
그냥 자연들  
그냥 짚기 시작한 것들  
늙은 그루터기들의 나이에  
한없이 돌려 논

가는 실선  
성숙하여도 다 자라도  
앞새만은 푸르기를  
땅 깊이 오물거리는 성숙의 나이  
천천히 움직여 가고  
느리게 움직여 가는  
그냥 느린 숙제들  
질서 없이도  
따짐 없이도  
돈 없이도  
가야 되고 가야 하는 세월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받고  
생각으로 받고  
눈뜬 아침에  
깨어버린 사랑들처럼  
부서진 것들  
깎여진 것들  
그냥 지나가는 하루의 일상

나만의 봄은  
언제나  
닫혀졌다  
열려졌다 하는  
일상의 자연에서  
침묵으로  
돌아오곤 한다

## 카페

집 앞을 걸어가다 보면  
약속들이 보이는 곳  
집 앞을 걸어가다 보면  
타인들의 머무는 곳  
이 자리는 언제나 밝은 초롱 빛이  
가만이 켜져 있네  
서정적 침묵의 음악이  
사랑을 말하고  
작게 드리워진 책장엔  
쌓아 놓 추억의 장을 덮고 있고  
수많은 수다엔  
아직 살아있는 인생들의 고(苦)를 품고  
밤새 피워내지 못한 연인들의 시선엔  
서로를 갈망하는 붉은 빛들이  
한 손 끝을 마주 잡으며  
뜨겁게 흐르는 곳  
있는 과거도 없는 과거도  
남녀 노소 상관없이

모아 모아 씹고 씹는 눈빛들  
부끄럽다 두렵다  
민망하다 어색하다  
시선 없는 이자리 언저리  
제 삼의 인물들

집 앞을 걸어가다 보면  
여전히 서 있는 낡은 간판  
집 앞을 걸어가다 보면  
아직도 정든 들이 모여 있는 곳

## 못다한 사랑

귀공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  
고개를 쳐들고  
눈을 내리 깔고  
턱을 추켜 들고  
허리는 꼳꼳이 세우고  
우아하게 걸어

걸인이 된 여자는  
연 푸른 잔디를  
맨발로 걸으면서 웃어  
한때 귀공자는 같은 걸인이 되어  
그렇게 걸었지  
그러나  
이젠 다시 귀공자의  
자리로 돌아가  
잊어버리는 거야

결인이 된 여자는  
그저 못난이 사랑만 할거야  
울고 웃고 찡그리는  
못난이 사랑만 할거니까

귀공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  
너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결인이 된 여자를  
바라 볼 뿐이야

## 빈 마음

왜 사랑하라고 하니  
나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왜 안으려 하니  
나는 아무도 안고 싶지 않는데  
무지한 땅  
빈들  
지금의 마음

## 어느 밤

꿈속에 사랑하고 나면  
아침이 오고  
두 눈을 뜬다  
지난 밤 몰래 한 것들  
도둑맞은 내 사랑

## 전화

아는 타인들처럼  
가까이 있으나 떨어져 간 사람  
이젠 말하러 합니다

무성해진 초월  
끝없이 펼쳐진 풍요의 등잔  
머뭇거리며 둘 다 내려 놓 전화기  
정돈된 머리칼  
고뇌 섞인 얼굴  
예정된 짐  
혼자만의 배신들  
죽은 밤에 그리워 엉기던 숨털처럼  
사랑했을지도 모를 그

벽 없는 세상을 떠받치듯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는 책상다리 한  
시력을 해치는 대립자들 저 편에  
짧은 고백을

무겁게 가볍게 여기며 키워온 비밀  
눈 오는 날 뜨거운 코코넛처럼  
질게 사랑하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그  
입으로 뱉으면  
사라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이젠 말하러 합니다

잠든 전화벨  
눈부신 새싹들  
붉은 해가 떠오르는 어느 아침  
초연한 음성하나 몸짓하나

춤추며 나르듯 감싸 안은  
회전하는 발레리나의 어지럼증처럼  
순간 빙 돌게 하는  
지난 추억의 이야기 한편  
초연한 음성하나  
여보세요 안부를 묻는 소음하나  
무반응 찰칵

##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

짜사랑이 하고파  
밤에 몰래 기어드는 달님처럼  
남몰래 키우고픈 사랑  
짜사랑이 안 되는 여인  
나는 짜사랑이 하고파

사랑한다고  
두 번만 외치면  
다가서는 이들  
나는 짜사랑이 하고파  
가슴 시리며  
밀고 밀리는  
스스로를 떨게 하는  
그런 짜사랑이 하고파

## 정글 숲

뜨거운 아스팔트  
한여름의 태양  
그와 내가 텅군  
모래사장의 하루  
뒹굴수록 파고드는  
모래알들처럼  
배 암들의 빠리 틀 듯  
감겨가는 두 눈동자  
정글 진 숲도  
태양은 끼어들어  
천지가 모래인  
천지가 숲인 그곳을  
훑고 또 훑는다  
나의 사랑  
나의 맘  
부끄러움 없는 곳  
긴 머리로 얼굴을 묻는다

## 청과동 낚은 집

가시 넝쿨 하나  
호박 넝쿨 하나  
갈래 갈래 입 벌린 전선 속을  
기어 오르다 기어 오르다  
숨 돌리는 등짐 진  
여인네들의 호흡  
하늘이 부끄러워  
부지런히 부지런히 일하는 언덕 길  
타고 넘고  
드나드는 실없는 지창이 하나  
어느 남정네  
튼실한 낚은 집  
새벽 창가엔  
끝도 없이 퍼붓는 새벽비가  
설 잠을 깨운다  
오늘도 깨어 사르라고  
마음 붙여 사르라고

## 빗소리

빗소리  
정답구나  
말 상대 없는 방 한 칸의 칠 년  
부모도 없는 것이  
애인도 없는 것이  
숨은 어느 동굴에서의 칠 년  
밖으로 나오라고  
걸 꺾질을 벗으려고  
쏟아지는 비에게만 말한다  
꿈 소망 사랑  
정답게 되돌려 주는  
새싹 싸삭한 빗소리  
똑똑 부딪혀 다는  
내님의 발자국 소리

## 장마

울어라 울어라  
방황한 거리야  
소리쳐 맘껏 울어라  
네 소리가 그리워 겨울부터 봄까지  
태양은 붉게 탄 것을  
쏟아져 내리는 네 눈물만 봐도  
알거 아니냐

울어라 울어라  
외로운 거리야  
소리쳐 맘껏 울어라

## 출근 시간

창자 속은 바쁘다  
늘어진 신문  
유혹하는 커피 향  
유혹하는 짧은 시선  
맞닿는 가슴과 가슴  
근심 고통  
소설처럼 흔들리는 삶의 허  
줄린 조상들의 하품  
뻗어진 아침 상들의 내음  
짱그리다 멈춘 얼굴들  
무리 속의 외로움  
오전 여덟 시 그 이후  
비어 있는 창자 속  
아무 말 없는 시계만  
찰각 찰각  
쉬지 않은 인생  
나이 살이 벋둥거린다  
늘어지고 만다

## 천삼백 원의 하루

실업자

낮에도 분비는 지하철  
한 남자가 졸고 있다  
붉은 입술의 여인은  
오늘 오전부터 정오까지  
무엇이든 하러 나왔다  
나란히 앉은 살 갓들  
색소들의 오염  
살찐 살덩이들의 늘어진 호흡  
정오의 술한 머리들  
휴식하라고  
꾸준한 망각의 늪  
어는 지하철 끝

## 인생 지하철

만나라

으깨져라

소리쳐 보라

몸으로 만드는 언어

분비는 지하철 안

인생 지하철

## 그대를 보낸 후

비 오는 밤  
소리치다  
머물다 혼자 팔짝 끼고 가던 뒷모습의 그  
쏟아지는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다 적시며  
흰 옷자락을 향해 가는 그  
나에겐 다시 돌아 올 수 없어  
끝없는 태평양만 혼돈 없이 돌아  
오던 길 다시 가는  
상처 입은 뒷모습  
그 밤은 유난히도 어두웠다  
마음이 오염하는 소리  
소리 없이 내려 주면 서러울 것을  
추적추적 끝내 밤을 세워  
소리치다  
내가 먼저 잠들어 버렸다  
그를 보낸 자리

## 연기자

공인들의 목소리  
오만과 여유가 군림하는  
버스 안에서처럼  
입들만 모아다 놓은 아우성  
폭포 쏟아지는 길가에  
끝도 없이 재잘거리는 아우성  
무책임의 연기  
인생도 연기인 듯  
사랑도 연기인 듯  
진실 무더진 신념  
낳아진 아이도 연기 속으로  
들어갈 뿐  
현실은 무 가공  
공인들의 탈  
믿는 이 없는 가공의 무대에서  
대신 울부짖다 잠드는 자들  
친화할 수 없는 무속인들의 관계처럼  
읽다 지쳐

지켜보다 지쳐  
떠나 버리곤 하는  
그들과의 자리  
살 맥주한잔에  
너저분한 수다자리가  
한번 가고 나면  
허탈한 끝  
그들은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글거리는 뜨거운 냄비들처럼  
쉽게 더워졌다 꺼진다  
인생 조차도

## 집 짓는 마을

질퍽한 누우런 흙  
겨울지나 햇볕은 가지 위에  
도심 문명 박고 싶은  
집 짓는 마을

하늬바람 곱게 피어 오르는  
하늘 따라 길 따라  
포크레인 불도저 컷가 도둑들  
끄덕 없이 붙들고 놓지 않았던 책들  
시커먼 꺼멍 흙 진주  
갑자기 뿌연 집 지붕들

봄이 알아  
새끼 치려는  
햇 새벽의 게으른 이불  
해진 계절에 어둠 굵뜨듯  
소리 없이 집 짓는 마을

무엇이 더디 흐르나  
무엇이 더디 바라나  
사람 사는 세상  
아집 있는 세상  
아직도 두들기는 속 없는 벽공들

자꾸만 커져가고  
등그러져 가는  
시멘트 섞은 모래 뭉치  
탁 쳐 내 깔리면  
세상 이물질 하나 탁  
그 벽에  
탁한 세상 점으로 찍고  
속은 다정 량

싸한 봄 바람에  
우르르 날리는 알알  
현대판 모형에  
뿌리 내린 노오란 아네모네  
보라색 제비꽃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와 앓은 바위틈  
식은 땀 흠치며  
홀로 앉아 있는  
어느 노동꾼의 꿈  
동그렇게 돌린 연못에  
물이 고이면  
벽돌 쌓듯 돈 쌓아  
만들어 나가는 소박함 머물  
집 짓는 마을

가슴마다 가슴마다  
부드러움 박으며  
등짐 짓고  
땀 흘리는  
새들의 지푸라기  
부지런히 푸들거리는  
죽은 가지들  
새짐 짓고 새 맘 얻는  
집 짓는 마을

지붕마다  
산 새울 우는  
담배 꿀 우는 연기  
야참 끝낸 휴식  
서둘러 지은  
집 짓는 마을

마음의 완성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부으면 하늘 감싸 안고  
끄덕 없이 만들어낸 왕국  
휘어 청 달 그을릴 밤새에  
된 바람 아랑곳 없이  
버티고 넘나드는 수천 년  
세워 낸  
집 짓는 마을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련다  
울타리 없는  
등그렇게 흐르는 개울 목  
이정표 없는 풋말

지금은 공사 중  
집 짓는 마을

## 변해 버린 시대

새벽 12시인가

밤 12시인가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 들려라

기적 소리 울리는 정겨움도 들려라

엄마 잃은 기차소리

철심 박은 군화소리

너른 골목에 주둔한 쓰레기들

주어 담은 오토바이 소리

한번쫓 눈 떠 본 세상

우리들의 질서 없는 사랑이

차레로 묻히는 곳

일렬 종대 짝 붉은 등

지나선 한강변의 다리

차라리 초록 등이 따사로웠을 빛 그림자들

진통하는 산모들의 마지막 구멍

출구는 막히고

헤픈 여자들의 웃음들은 뚫린다

잔치 없는 세상

초대 없는 세상  
누름 없는 세상  
열림 없는 세상  
한 여름 방안에서  
가려진 비밀  
상실의 무정  
과묵한 빌딩 숲  
차라리 그것이 더 나왔다  
헤프게 누운 산들보다  
오직 높이 솟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이 된 자들  
오직 흐르기만 한 다고 강이 된 자들  
자연이 주는 솔직함 키우지 못한  
인간 기계들  
그저 통과의례로 썩 맞추어진 만남  
만나고 헤어짐 없이 헤어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 낸 아이들  
그것이 자식이고 2세대  
편리 하계도  
부지런한 욕망이  
소실점을 잃고  
무더기 군중 속에서 제비 뽑기를 하듯 골라

틀에 맞추어 사람들의 본에 맞추어  
올리고 마는  
초대장 없는 예식들  
퇴화된 습관들이  
하품을 하고  
현대판 질서에 나를 맞추라고  
허겁지겁 주어 입은  
변해 버린 세상  
바뀌고 바뀌고  
쉽게 만나  
쉽게 헤어지는  
가난의 쇼 윈도우보다  
화려하지만 속은 빈  
걸치레에 휘말려  
본인 모습 없는 터널 속에 빠져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한 칸에 쫓그리고 앉아  
김밥 하나 씹고 넘기던  
외로운 어린 아이  
아직도 삼학년

짜 재기던 욕구불만  
오줌자락 말린 이불  
엎혀진 키 자락  
뿌려진 소금 자락

현재는 기온도 올라  
전쟁도 났지만 알게 뭐야  
GND 알게 뭐야  
증권 주식 알게 무어야  
예금 통이 무인시대  
단지 생긴 건 청구서 고지서들의 습도  
성질인가  
승질 인가  
부글거리는 심장들뿐  
말뿐인 허송 세월  
머물 수 없는 우편 배달부  
우체통의 편지들이 날라 다니는 세상  
평균기온 모하비 사막  
현재의 한국 40도  
마음먹고 시작한 일들  
삼 년도 못 참아  
버텨 보지만

결과 없는 아귀들만  
버글 버글  
쓸모 있나 보려 찾아간  
서점 안에  
내용 없는 글귀들만 쌓여  
쪽수만 늘려 냈고  
소박 겸허 해라  
의지 대로 살아라  
과거에서 배워라  
누가 몰라  
딸에게 하는 말  
아들에게 하는 말  
베풀며 살아라  
읽기 좋은 말  
베풀었더니 쌓인 건  
약탈당한 빈 몸뚱이  
누가 몰랐나  
너까리게  
빨강 등 켜진다  
머리에선  
관록 있는 구두들 신다 버린  
한 수증터널

무릎 꿇고 찾아낸 해초들의 진실  
그들은 스스로 썩어 붙은 만든다  
모른 척 술잔만 기울이는  
늙은 백발들  
단지 고집에 단지 아집에  
맑고 맑은 살들만 키우다 축축 늘어져 가는  
살점들만 작은 스탠들 앞에서  
키는 고3들의 수험 방  
공부는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냥 재미가 있든 없든 소설책이나  
읽다 끝낼 일이지  
소나타 야상곡은 무어라 듣나  
뭘 말인지 모르는 팝송 나부랭이나 듣지  
졸린 눈 비비며  
섹스피어는 무어라 읽나  
그 어려운 영어 단어들은 무어라 외우나  
심각한 자살 소동  
공인된 자들의 외로움들  
인기 된 자들의 해프닝  
해매는 구두들이 구두 줄을 잃고  
허그적 허그적  
밟히기 전에 뛰어보자

생쥐처럼 피해보자  
두 눈 큰 고양이 앞에서  
작은 구멍에 앞에 놓인 생쥐처럼

때론 관습과 풍습이 중요함을  
때론 예의가 중요함을  
한번쯤 인지하며 살아간 세상이 되어 주길  
할 말 없는 세상에서  
할 말 있는 새벽 12시인지  
밤 12시인지  
알고 싶어  
묻는다  
보글 보글 서울역  
인간 시계추는 울린다  
땡 땡 땡

## 빨간 펜

아버지  
세상 아버지  
부르지 않아도  
왔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들  
쌈하고 채워서  
연말 결산 해달라고  
왔습니다

시간도 가끔은 훔칠까  
한 세월  
짐을 짰다 풀었다  
문턱을 넘었다 뺐다  
하며  
약식 쌓고 살다

고독도 맛보고  
욕망도 맛보다  
부디 먼저 가신 길  
궁금하여  
왔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긴 수염 안의 열매들  
한번 바뀌어 보려  
인내하고  
변화시켜 보려  
불변으로 외쳐도 보고  
하루 밤을 낮으로  
취했다 깬다  
이토록  
달아 본 저울질  
앞으로 보여줄 세상이 두려워  
물으려  
인생 결산 해달라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있습니까  
과제 받고 정리한 노트 가지고  
책보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 빨강 동그라미  
참 잘 했습니다  
별하나 별 둘 별 셋  
찍어 달라  
왔습니다

## 라디오

무언가 들린 다른 길이  
수치인 세상  
지난 가을 이바지 음식 타령  
사권대 글썸  
무언가가 들린다는 것이  
수치인 세상  
있다는 것 울린다는 것  
소음인가  
울부짖는 녀두리인가  
창 밖으로 내민 음

버스를 타면  
끝끝 거리는 혀  
잇고 마는 말들  
남을 것 없는 세상  
버틸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지

있다 존재한다  
그것만이 다인 세상  
머무를 곳이 없는 세상  
그저 시끄러운 소음

버스는 지나가고  
날 창 소리  
무심해진  
어느 라디오 음향

## 그림자

불 꺼진 밤마다  
주름 살이 새겨지는 거울  
화로 불 타오르며 비릿한 냄새 맡는  
기지개들의 정충  
가가호호 집집마다  
발아하는 새싹들의 비명  
무덤가 흑도 가에 들썩이는 흙들  
개미들아 춤추는 흙도 좀 보렴  
일하러 이어지는 줄 다리  
절뚝이는 방안의 정적

더러운 물이 아침을 맞고  
슈베르트의 왈츠가 세상을 돌고  
TV속에 뉴스가 침통한 얼굴을 밝게 들이는  
한 장면 행복한 세상  
청년들이  
아직은 세상에 미련이 남은 삶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묶는 가슴

혼자라도 살아라  
저 혼자 떠돌 듯 혼자라도 살아라  
지친 바람 가르며  
들쭉시는 초저녁부터 출렁이는 눈알 삼키며  
부글부글 끓는 화  
발효시킨 욕망의 취기에 식혀  
건배하는  
딱 한잔의 말  
미련 없는 것들을 버려라  
화장실에 가 모두 쏟아 버려라  
밤공기 축축해진  
사창가 다리  
혹시나 절룩거리며 머문 외로움  
밤도 새기 전에 빠져 나온 어느 나그네의 분노  
어디 버릴 것이 없어  
자신을 버리느냐고  
낙태된 태아들이 울고 또 우는데  
우리들 부추기는 유혹들  
꼬부라드는 염통들  
새벽이 오기 전에 술집 거품 벗겨내고  
무릎 세워 힘내라고

부르는 하얀 손  
텅 빈 자리 지키던 마지막 날  
하얗게 안개 가르며  
비틀거리다 곧게 뻗힌 해  
홀로 그 곁을 지나다  
아침이 오는 새로움에  
어제를 지원 낸다

## 흰 진주 알

조가비 물방울  
외진 진주 알  
모으고 굴리어 만든 진주 알  
바다 모래  
떡이 해초들  
반짝이다  
반짝이다  
외톨이 된 방망이  
외눈박이  
왜 반짝일까

## 편지

욕모 서리야  
손발이 시린 서리야  
무릎까지 시린 마음  
텅 비어 버린 작은 가슴  
한 활자로 만들어  
한 여름에도 녹지 못할  
마음으로  
네게 보낸다  
하늘 가지로  
욕모 잎 털어  
바람 실은 네 이름을  
마지막 활자로 찍고  
손발 시린 날을  
적어 보낸다

## 사랑한다는 내겐

사랑한다는 내겐  
답은 풀 하나가 생긴다는 것  
기억 뒤로  
꿈꾸는  
몽상가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

사랑한다는 내겐  
일상의 돌들도 의미가 생긴다는 것  
추억 뒤로  
소망한  
꿈들이 하나 더  
성취 된다는 것

기억하고 추억하고 사랑한다는 내겐  
꿈들이 많아 진다는 것

## 속마음

바람 불어도  
낮은 덩다  
이 가을에

깊은 하늘과  
뿔구는 낙엽이 있어도  
시멘트 벽 바람은  
차갑다  
기억의 초상들이 깨지는 어느 날  
창가엔 가을

몰락거리는 커피  
녹아 드는 얼음장  
바람 불어도  
풍성이 떨어지는 옅은  
구석진 자리에서 몽글몽글  
그림자 밝기  
따사로이 스치고 가는 가을

뺏뺏한 헛기침 그리움  
지우지 못하는 가을의 겨울  
샷시 창들의 떨림  
비우면 찾아온 가을  
팔짱 긴  
가을

## 시집들

돈 때 묻은 세상에서  
우박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비명처럼 솟구치는  
붉은 오염들이  
짜늘해지는 검은 늪의 밤  
빠그덕 빠그덕 정오의 출근을  
꺾고 기름칠한 하루를 보내고  
기어든 어느 창  
하늘로 모르라고  
비상하는 날개를 달으려  
끝없이 갈겨대는 재잘거림을  
아픈 입으로 기쁜 입으로  
광고를 하며 쏟아내겠지  
별 집은 집  
똑똑 떨어지는 밤의 고독  
사람이 씹어대는 골목마다  
범벅 된 사연은 내 말 네 말  
늪도록 발끝까지 소리 내어 울

나그네의 길  
홀로 가는 길

지폐가 낡아  
단내를 풍기며  
스치고 온 인연  
아픈 맘 기쁜 맘  
고이 고이 가르고  
인사하는 새로운 인연  
끝이 나면  
시작되는 것들  
앞으로도 가는 길  
돈 떼 묻은 시장 밭  
내가 쓴 것들  
우박처럼 읽어라  
땅끝에 꽃히어라  
우박처럼 쏟아져라  
책값들

##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모른다  
남산 밑 동네  
7년이나 한결같이 문을 잠그고 산적이  
없다던 그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모른다  
나는 그곳에 가 본적이 없다  
꼭 가 봐야 할 곳  
그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실까

## 제비꽃

호박을 타고 간 신데렐라  
옷자락 밟고  
모여서 된 마음  
잡아 당겨진 구두 한 짝  
온 곳으로 되돌아 갈 수 없어  
누군 가에게서 도망간  
열두 줄의 울림

## 의미 없는 집만 짓는 거미

칠월의 마지막 날  
사방에 집을 지으며 낮과 밤을 모르던 거미는  
이상한 삶 하나를 바라보며 멈추었다  
희망도 잃고  
사랑도 잃고  
한 중심점에서 고독하게 매달려  
거미줄을 타내는 얽힘의 사슬  
유리벽에 그늘진 해 그림자  
같은 모습을 하고 돌이 된다  
네가 헤어질 수 없는 것인지  
의로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길어져 간다  
지켜봐 주는 나는 아무 말이 없다  
칠월의 마지막 날은  
그렇게 갔다  
안의 거미가  
밤의 세상을 모르듯  
모두 달아난 세상

나 자신도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알지 못한다

해가 바뀌고 배경이 바뀌어도  
삶을 깨닫지 못한 나는  
의미 없는  
집들만  
거미줄 타며 짓고 있다

## 도심 속의 자연

눈을 뜨면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빗소리 나는 늘어진 빌라 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지붕 위를 구르는  
물소리에 그 길을 헤매다 온 님을 그린다  
그림자가 매일 저녁  
내 집 앞 벽돌들을 너머 길 강물을 따라  
돌고 돈다  
기적의 구름 강처럼 곤충들도 살아  
감자뿌리 같은 둥근 열매를 뿜어  
저녁 별에게 같다 준다  
먹으라고 각기 살아가는  
얼굴에 내밀며  
가벼운 찌르르 노래도 부른다  
내 몸이 가벼워 지기 위해서  
수백 가루의 설탕을 뿌린다  
필요한 곤충의 입에선  
달처럼 둥근 입술을 벌리고  
그것을 달콤하게 씹는다

도심 속에도 눈을 뜨면  
이런 일들이 길게 드리워진다

## 여름이 올 때마다

여름이 왔다

내 집 앞 쓰레기 더미에 악취가 덮이고

하루에도 서너 번 흰 안개를 뿜으며

소독차가 지나간다

헌 옷 입은 자들이 헌 옷을 구하기 위해

옷상자를 뒤지며

더 많은 다른 얼굴들을 알려고

소리쳐 트름을 한다

몇몇 술주정뱅이 같은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리는 곳이

여름의 저 아랫길에서부터 사라지고 나면

나는 무엇인가

열중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여름이 왔다

하찮은 삶에게도 주어지는 것

밤에 등불과 흐르는 물만 있으면

부질 없는 같은 생각의 강이 흐르는  
책 속에 묻힌 두 눈은 늘어진 가지에게까지  
붉은 열매를 달라고  
머리를 짓누른다  
갈 곳 없는 자가  
머물 곳 없는 자가  
창백한 흰 얼굴을 비비며 내민  
비 때문인지  
구름 한 점 흐르지 않고  
등 없는 낮의 흐름만  
마늘 같은 열매를 툇툇 따며  
여름을 난다  
변함없이 찾아 오는  
멈춤 없는 일  
해마다 멈춤 없는 일이다

지치다 쓰러지면  
책장에 묻은 낮잠이  
이슬 방울처럼 구르고  
하찮은 삶에 오갈 데 없는 집 지붕에  
그들이 드리워지고  
침묵이 홍수 되어 넘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외쳐 된다 바람아  
이젠 오래 불고 속삭이면서  
바깥 여름의 큰 물결 되어  
나를 데 불고 떠난다

흘러 갈 곳 없다고 변경하지 말고  
여름 구름 멈추듯 하늘 깊은 곳에  
멈추지 말고  
데불고 가 다오  
소리 없이 외친다

## 거북이 노래

땅거미 지는 놀이 뜨면  
한 노래가 있어  
바닷가 바위섬 아래로  
찾아간 파도

내 그 노래가 있어  
여윈 가슴에 홀로 누워도  
내 작은 달팽이 뿔이  
힘내어 오랜 집을 짓지  
모래 집

나 너에게로 가는 연필 하나 있어  
손가락 마디  
한 겨울 소매 속에 감추었다 꺼내  
파묻어 놓은 자리에  
푸른 새 부리 되어  
손톱 자라듯 새긴 말  
바람 풍 쓸어 갈까

별들에게 부탁하며  
밤새 새긴 말  
쉬지 않고 거슬러 올라  
등불 심지 굳힌  
작아지고 작아지려는 맘  
그림자 드리우기  
바닷가 모래 사장  
거북 알들의 탄생 이은 발자국

못 부른 노래가 어디 있어  
솔나무 드리우는 바위 뿌리에서  
거북 알 탄생 이은 길  
새들이 잠들고  
솔 나무가 잠들고  
달이 지키는 국경 넘어가는  
노래 하나  
바닷가 새집  
파도 타는 새끼 거북  
살아서 찾은 새집의 노래

## 한 여름 귀뚜라미로 남으렵니다

낮에 불 한 점 켜고  
몸 아픈 날  
쓰는 책은  
여름 귀뚜라미의 살고 우는 소리입니다  
밤이 넘도록 빈 곳을 뒤지며  
낮게 우는 소리로  
귀 흘리듯 슬피 슬피 우는 눈 속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근처에는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사는 집 근처에는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낮은 불 한 점 켜고  
열기 나는 몸을 태워  
글썸 글썸 우는 여름 밤의 귀뚜라미로 남으렵니다

## 나의 침묵

나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나 입 있어도 물을 수 없고  
나 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은  
보는 것이 망설여지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기에  
드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세상에게 침묵을

## 비 그치고

비 그치고

나는 태양이고 싶다

뜨거운 몸을 태워

세상 겉옷을 모두 벗기고 싶다

탈 없는 진실을 붉게 붉게

삼키고

지는 희망을 뺏어 새 희망을

불러 들이기 위해

저녁 하늘을 깊게

바라 보다 태운다

## 팔월의 시 십이월의 시

종이 위에 쓰는 시는  
책이 되어 남고  
사람 가슴 위에 쓰는 시는  
생이 되어 남고  
허공 위에 쓰는 시는  
쓰다 지쳐 사그러든다

팔월의 모래사장이 쓰는 시는  
바다가 쓰러 가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십이월 눈 위에 쓰는 시는  
눈이 녹아 버리며  
흔적도 없이 살아간다

## 두 손 모으고

두 손 앞에 모으고  
집 하나 마음에 지고  
오르는  
구 공 깊은 골  
가장 먼 곳까지  
죽어 가는 것들을 흔들고  
내려와  
모아지는 점점이  
사람 하나  
커지다 작아지고

## 일월

바다 해변에  
발자국 하나  
밀물 밀려와 쓸어간 보드라운  
가는 모래 평면  
새긴 생

## 삶의 이력서

나는 달에게 이력서 한 장을 썼네  
검은 하늘의 달에게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달려  
희망하고 바라는 권리에서 태어난 우리는  
우주를 홀로 꿈꾸며  
구름들이 몰려와 새 등지를 감추어 버렸지  
나 졸작 같은 시에서  
거리를 헤매지만  
수년간의 삶들은 잊고 산 세월을 시로 남겼다네  
누군가 적은 접수번호 내 이름을 기억하는  
그리곤 지워 버린  
나 태어나는 날  
첫 닭이 너무 늦게 울어  
새벽 별에 별뿔별 뜨는  
아침을 먹고  
눈먼 예언자들에게서  
삶을 지배당하고  
어둠이 서서히 별들을 가리며

꿈꾸어선 안될 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도록  
달의 밝음에  
오갈 길을 모르는 눈먼 자의 지혜를  
비추이며 인도 받도록  
달이 해변을 따라 걸으면  
나도 따라 걸었다  
달은 병성이 되어 준비된 것들을  
밝히는 나의 이력을 받아 들인다

##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길래 나를 재는가

열 살 때부터 작은 방에 숨어  
읽어 내린 책이 수만이고  
혼의 무게로 써 본 시가 천만인데  
너희들은 무슨 무게로 나를 재는 것인지  
나와 함께 해 본 적도  
나와 동행한 적도  
손잡고 걸어본 적도 없는 너희들이  
저 무서운 밤 가지들의 흔들림을 어떻게 안다고  
검은 부리를 나에게 내미는 거리  
공격할까  
무엇으로  
두려운 시인의 이상한 나라에 와 앓는다  
벌레들이 거미들이 늘어져 내린 여름 땅  
흐려져 가는 안경 너무 세상은 값아 먹고  
연 푸른 등나무의 끈기를 값아 먹으며  
견뎌내지 못한 언덕 너머로 달아나는  
어느 별의 모래성에 그토록 공을 들였는지  
어려운 단어와 단어가 묶여져

책갈피에 넣이지듯 가방 속에 쑤셔 넣으면  
복잡해진 머리 속은  
아프다 아프다 외치고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를 때까지  
작은 방 창가에 별이 찰 때까지  
그 별의 동무 삼아 이야기하는  
그을린 안개 속으로  
죽을 만큼 기어 오르면  
너에게로 가는 '만'의 세계가  
이루어지겠지  
너희들의 시는 무엇을 표현하기에  
버림 받은 어린 시절 그 상처 같은 슬픔을  
머리를 식힐 겸  
넘긴 이마에 새겨 허무 같은 것을  
잘 가라고 잘 가라고 맞춤 표를 찍는지  
찍고 나면  
가벼워지는 세상  
해가 솟는다

## 제비들처럼 왔다 제비들처럼 가리라

제비 한 마리 날아 왔다  
머리 가에 흰 갈퀴 단 호기심 많은 그가  
나를 쳐다 본다  
아주 멀리서 짙 푸레 하나 입에 물고  
흙 기둥 사이에 모래 앉아  
검으스레 죽죽 한 날개를 펴다 모으며  
집 천정을 바라보며 집 지을 준비를 한다  
인생이 오른 소리  
고독하여 보이는 누구나 홀로 오는 소리  
그는 쳐다 본다  
묻는다 혼자였냐고 몰랐다고  
제비는 눈동자를 빛내며  
무거워진 짙을 한 부리로 엮기 시작하며  
두 날개를 퍼덕거리며  
나에게 말한다  
자신이 아는 비밀들을  
눈부신 나라들의 꿈들과 희망을  
자신이 보고 듣고 반짝이며

날아 본 하늘을  
슬픈 인연들을  
제비들이었다

나 어렸을 때도  
제비는 날아와  
우리 집 처마에 제비 집을 지었다  
아침에 두 눈 비비고 일어나면  
재재거리며 말을 붙이곤 하였다  
서리 묻은 돌길 위에서  
마른 짚 고르며 물고와 생의 비밀 가르쳐 주듯  
꿈꾸듯 지은 집  
얼마나 빠르던지 얼마나 부지런하던지  
시들고 마르는 듯 보이나  
엮어 놓 사발 같은 집  
정오가 되면 제비는 보이지 않았다  
비어 있는 처마 밑 제비 집 안에는  
폭신한 흰 날개 숨이 깔려있고  
푸른 하늘 어디에선 두리 된 그가  
세월 지붕위로 날아온다

밤이 되어 완성된 그들만의 새 집에서  
꿈이 커져 간다  
명상에 잠긴 어린 두 눈  
수선거리는 소리들이 바스락  
은밀히 만나는 소리  
제비들의 보금자리는 두런두런  
이야기 꽃이 핀다  
그들의 집에서 고개를 내밀며  
빛나던 눈들은  
깃털 없이 몸이 된 가벼운  
구름 같았다  
꿈이 핀 구름 같아 편안해 보였다  
예언자들의 노래가 들리고  
꿈 저편에  
한 생명의 말들이 꼬물거린다  
구름이 몰아준 축복  
몇 일이 지나면 재재거리는 소리가 커져간다  
여럿의 소리로 변해간다  
숨털 같은 날개들이 모여  
모이 받아 먹는 입만 벌리고  
서로 크려 한다

분주한 날들이 아침마다 날고  
언 땅에 새싹들이 돋기 시작할 때쯤

봄이 온다  
봄이 오면 이사 갈 준비를 한다'  
밝은 세상으로  
또 다른 겨울 나기를 하기 위해  
갈대는 가족이 생겼다  
제비가족 봄은 이별을 준비한다  
나의 눈에선 눈물이 고여 든다  
이미 봄은 와 버렸다

## 인생

울고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기분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안다

거미들의 줄이  
얼마나 질긴지  
거미줄을 타 본 사람은 안다

울고 웃는 것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안다

## 추억하나

십칠 년 전

칠월

차가운 붉은 별이 뜨고

박힌 달 하나

아무 의미 없이 소식 없이 흘린 옛 애인

나는 십칠 년 생을 마감했다

## 장갑

작은 손 싸고 다녀서 좋다  
모난 모습  
모난 삶  
따뜻해지라고  
작은 손 싸고 다녀서 좋다  
겨울이 따뜻해지는 이유  
장갑 짱

## 자작나무

사랑은 침묵이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침묵이다  
말이 되어 나오면  
그 사랑은 잃어버리고 만다  
자작나무가 어릴 때 들려준  
바람의 소리이다

내 귀엔 이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침묵을  
들으라고 울리는  
자작나무 된 이의 울음만 있을 뿐이다

## 모성

긴 나무엔 코알라가 있다  
코알라 등엔 코알라가 있다

긴 들엔 캥거루가 있다  
캥거루 배엔 캥거루가 있다

## 옛 숲 터 길

황금의 벌레들이 있고  
안으로 더 들어가면  
늘어진 옛 기억이 누우런 덩굴을 가시로 덮은  
벽돌들을 부수고 있다  
새들의 부리로 물어 나를 지푸라기가 사방에  
깔리고 한 빛이 터진다  
낡은 숲에서 태어난 반딧불이다  
오솔길 깊은 어린아이의 길은 말들이 달리다 멈춘  
고독처럼 고부랑 길이다 한 점이 되고 만나는  
젊음의 방향도 더 늦기 전에 나의 숲을 빠져 나와  
그 오솔길로 떠나 버렸다  
숲이 돌아 누운 자리는 그 옛날의  
추억이 되어 남고  
젊음은 잊혀져 갔다

## 목이 길은 짐승이 내게 하는 소리

목이 길은 짐승이 내게 하는 소리  
침묵하라  
안과 밖의 힘겨움에  
노여움과 분노에  
상처 받음과 인내에  
내 밤과 내 삶을 훔친  
이들로부터 받는 비웃음들에게  
침묵하라  
빛이 저버린 한적한 물가에  
비 구름이 몰려와 나를 뿌리듯  
비 그늘을 속여 흐르는 시간에 나를 보내듯  
길을 뚫고 지나는 힘 앞에  
보이지 않는 시선의 조롱들에게  
움직이는 손을  
물 위에 잠그며 그런 저녁 마저  
물 속으로 들어가 침묵하라  
목이 길은 짐승이 훔쳐간  
나의 인생  
어느 날부턴가 침묵이 잠겨 있다

## 중소리

흙 위에 뿌리를 내린 기둥들이  
둘러 있는 여기  
방향 없는 몸짓들  
무의미  
발에 채인 돌들의 무게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들  
빛이 갇아 먹은 잎새  
벌레들  
무의미  
열림의 마음  
눈자위에 자라난 나의 마음  
여기  
파도 밀리듯 밀려와  
하늘 방울로 날리고  
종말이 오라고 울리는 중소리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작은 몸짓을  
무의미로 만든

죽은 자들의 눈  
우리의 소리는  
검은 안개 기둥을  
뿌리로 흔들고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한때 되 물은 가슴으로  
아프게  
멈추지 않고 지나간다  
종소리들  
여기 서 있어  
우리 구속하지 못하는  
찬란한 뿌리기둥들을  
흙 속에 서 있게 한다

## 질투

산마저 나를 버리면  
강이 되어 가리  
산이 나를 오라 부르면  
골마다 꽃이 되어  
있 떨구리  
산이 불러 나 산으로 가니  
저 산이 자꾸만 작아져  
나는 산 쪽에서 강으로  
눈을 돌린다  
산 안개가 강을 덮는다

## 묘비 없는 비목

나는 묘비 없이 죽으리라  
나 여기 가루 되어 서 있다  
이름 석자 빈 작은 상자 안에  
비목으로 갇혀 있다  
눈부시게 살았구나  
인간의 몸으로 바람 되어 나르듯  
빛처럼 살아  
빛처럼 묻혔구나  
나 홀로 가루 된 곳에서 나와  
산 비목으로 남으리라

## 하늘과 나 사이에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나보고 나르라 한다  
땅 사이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 보면  
땅 사이의 세계는  
다 버리라 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버릴 수 없다  
그 어디도  
나 아닌 곳이 없기 때문이다  
피 없는 심장에도 추억은 머물고  
지난 흔적은 남는다

그는 내게 밤이슬의 도둑처럼  
이슬을 밟고 와서  
나더러 누우라 한다  
물이 누우라 한다  
들이 타 오르라 한다

내 안에 있는 나는 울고 만다  
반가워서 반가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며  
울고 만다

## 헤어질 때 말없이

헤어질 때는  
누구든  
잊을 수 있는 것들을 잊으며 가자

함께 부르던 소리  
함께 나누던 말  
함께 느끼던 세상 모두를  
작별로 고향고

용서하라는 말 없이  
떠나온걸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누구든  
헤어질 때는  
지는 해 앞에  
노을 비추듯  
한번쯤 자신을 비추고  
잊을 수 있는 것들을 잊으며 가자

## 일개미

길가에 쓰러져 잠든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모를 벌레 한 마리  
어설픈 두 날갯짓만 하고 멈추어 있었다  
땡볕은 찾아온 그늘 바위가  
시원스러워  
인생의 쉬어가는 맛을 맛보며  
벌레만도 못한 생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열심히 여름 내내 수고하는 개미들의 행렬  
작은 동굴에 무엇을 그리 쌓아 놓는지  
저축하고 저장하고  
무던히도 인내하는구나 싶었다  
벌레 한 마리 늘어지자  
일개미들이 몰려와 누인 몸을 끌고  
자신들의 행렬을 자랑하였다  
먹이감 얻은 상여행렬을  
먹이 사슬 이어지는 굴레  
생에도 이어지듯  
이만한 인생 살다가는 것도

복이었다고  
욕심 내보는 사랑하나 있어  
지키고픈 인생  
그만이라도 잘되라고 비는 마음  
개미만도 못했던 열심 오늘만은 힘내어  
여름 내내 살아 보라고  
머리 땀을 흘린다  
나 살아가고 있는 길가에서  
풀숲의 벌레는 가고 없고  
일개미만 남았다  
어디선가  
보내오는 마음만 바라면서  
일개미만 남았다

##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반딧불이 들 위에  
밤이 깊도록 빛을 발하며  
하늘로 오르듯이  
별은 별 되어  
구름은 구름 되어 하늘에 있듯이  
대지엔 대지 되로  
꽃들과 나무와 집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산다  
전등불 모여 사는 집 지붕마다  
제각기 자신들만의 노력의 몫이 있듯  
얻은 만큼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  
풀섶으로 나와 어지럽증 나도록 사는 세 삶은  
들을 하는 벌레가  
방안에 갇혀 방안의 전등만 비치고  
별들을 비추지 못하는 눈은  
벌레 안의 반짝이는 힘이

그를 떠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제 자리로 돌아가 모두  
자신의 몫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나뉘어진 삶의 갈래임을  
숨 쉬는 마디마디는 말합니다  
그것이 질서라고 노력하여 얻은 자리  
그것이 제 몫이고 자신의 자리라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들  
이기도 하다고

## 소금만 남은 바닷물

바닷물에 입을 대어봤니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사탕처럼 달콤한 울음을 울며  
눈 앞의 먹을 것만 탐하는  
어린 가슴으로 살아 가나  
삶은 그런 것만은 아닌데  
채워지지 않는 꿈으로  
무모한 사랑으로  
헤어졌다 만나면서  
방황하는 집을 떠나  
낯선 타인들에게  
소금의 짠맛을 이야기하여 보고  
쳐다보고 들쳐보는  
책들 속에 죽음과 고통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비를 맞고  
각자 자신의 모습에 맞는  
옷의 색깔과 모양도 고르며  
더 이상 머물 바닷물이 없도록

짜고 짜낸 그 맛  
나는 짠 맛을 잃은 바닷물을 보았네  
생의 집착과 미련은  
소금만이 모래사장에서 잊었네  
사라도 마찬가지로 었네

## 젊음이 다한 어느 날

아침에 눈뜨고  
외로움이 몰려 오는 날  
마음속 이런 저런 모습이 답답하여  
저절로 뛰어 나온 거리  
들 고양이들처럼 만남의 집 지붕 헤매다  
들어온 자리  
푸르른 마음으로 숨고 싶어  
하늘 이불을 덮고 잠든다

밤이 깊어 중간쯤 깨어  
하늘 바라보기  
쓸쓸하더라 공모하나  
누울 자리 낮게 강아지 한 마리  
네 이름 지어준 이 여기  
홀로 있다

## 나무 그루터기

뿌리만 남은 나무가 여기 있다  
누군가 소리치며 내려오는 산길  
시원한 바람이 얹은  
그루터기들  
죽은 나무인줄 알았는데  
산 사람이 오는 꿈이었나  
그냥 버린 가지와 잎들  
그래도 살았다

## 봄을 아는 이는 있음을 안다

봄을 아는 이는 있음을 안다  
살아 있음을 안다  
봄비 가늘어  
한없이 적신 라일락 꽃잎 향기 뿌리고  
죽은 자 깨어나 한 존재로 살도록  
두려워지는 인생을 일깨우고  
봄을 아는 있음을  
고개 숙인 산들의 나무들을  
쉴새 없이 움직이게 하라고  
평온을 되찾게  
해만을 열었다  
봄을 아는 이는 있음을 안다  
살아 있음을 안다

## 나의 나무는 죽지 않는다

죽은 나무 하나 있어  
산 나무 곁에  
누군가 소리치지만 뒤돌아 보지 않아  
물을 주면 살아날까 그 뿌리  
흔들리지도 않아  
죽은 나무 기척도 없어  
산 나무도 따라 가려 한다  
그냥 잎 지고  
마음 지고  
아니  
죽을 수 없어  
물을 마신다  
산 나무를 따르려다  
뿌리부터 마신 마른 가지  
잎 하나 되었다

## 자유롭다

외딴집에 홀로 사는 즐거움  
침묵의 그  
선택은 끝났다  
어깨죽지에 피어 오른 날개  
자유롭다 시간 안에 자유롭다  
붉은 꽃 하얀 지붕에 피어 오르고  
그림자 반항하지 않는 꽃 창포들 긴 잎사귀  
얼룩의 뜰  
태양이 가꿈은 남쪽 문을 날아  
열매를 주어 담는다 머무를 수 없는 들길따라  
연못 속의 물고기는 외롭다 친다  
한쪽으로 비켜섰던 자리 다시 가리  
발 앞에  
깔린 잇음  
다시 찾아 머무르려 하나  
그 시간은 꿈꾸는 나비의 슬픔이었다  
비탈 지는 한 세계 한 비탈  
모자라서 느끼는 통증이라면

배려와 양보로 마음을 열어  
꿈꾸는 일에 희망과 자유를 주었다

한번도 구속을 원하지 않았던 그  
강 아래 쪽 세상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냥 쏟아지고 말았다  
꽃들이 그림자 되어 비추듯 박힌 폭포 끝  
고이다 머물 것 같았던 자국  
미끄러져 내린다  
좁은 골을 따라  
키 작은 바위틈을 따라  
검은 물 잠자리에 앉아  
햇빛 그을린 얼굴 물속에 처박고  
큰 안경 쓰고 앉아 자유로워라 두 날개를  
오므렸다 폈다  
하늘 향한 나의 두 날개는 자유롭다  
알 수 없는 구속으로부터 떠나  
내가 아는 세상으로 이끌리어  
날아간다

## 슬픔

슬픔

겨울 숲에 서둘러 가던 자리  
그만 깨우고 말았구나  
부스럭거리는 늑대에게 놀라  
화로 불 붙은 저문 어둠  
조용히 지나가려는 달 그림자  
별하나 똑  
별똥별 떨어져 앞으로 떨구고  
하나도 어울리지 않고 퍼지는  
메아리 우는 사막 끝으로  
흰 새 날개 퍼지게 같던 눈부심  
박수 치며 다가오는 세월은  
길 처음부터 따라오던 서리 묻은 나뭇가지  
흔들거리는 까마귀를 놀라게 하는 것

슬픔

겨울을 들키고 만 사연  
늑대 된 자의 슬픔  
까마귀 된 자의 안부

## 태양아래 세상

꽃이 피면  
나비 날아와  
찢어라 나비의 날개

덧에 걸리면  
끊어 버려라  
발목을

들이 밀어라 빨처럼  
구름을 뚫고  
차가운 구멍으로  
자아를 집어 넣어라

비틀거려라  
파도 치는 물 위에서  
속에 처 넣고 남은 악들은  
너 세포를 말려라

하늘 등지를 넓혀라  
낙인을 찍어라  
주홍글씨로 너를 이마에  
마음껏 들이 밀어라  
둥글게 말아 찍어라  
몸통을

침을 흘려라  
죽이고 싶은 목을 자르기 위해  
악마들의 선을  
모은 섬에서  
까마귀 울 듯  
가장 높은 솔가지에 올라  
달 속으로 집어 넣어라  
팔 다리를  
그곳에는 잡을 지붕이 없다  
올라가 머물 곳도 설 곳도 없다  
태양 아래 세상은  
더 이상 자유이고자 하는  
자유가 없다

## 작별

바다 안에서 어지러운 풀 냄새가 난다  
무엇인지 모를 머뭇거림  
사람이 흔드는 모래 사장이  
들판의 풀 내음 때문이라고  
해변에서 말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그 무엇  
현기증 나는 반복들  
강 하나에 둥글게 원을 그린다  
돌고 말 고리  
태양이 푸르라고 떨군  
들판의 가장자리 불꽃 별  
걸음 걸음 옮길 때마다  
돌을 부딪혀  
돌로 깨지라고 양팔 벌리고  
땀 세운 가지 꺾이고 꺾여  
확실히 맞닿다 손끝에서 끝난다

옷 벗고 나온 세상에서  
투명한 빛 바다를 만나  
내 몸 안에 둘 달린 마음에  
흔들리는 어떤 힘 얻고  
조용히 소리쳤으나  
소리 나지 않는  
공중 회오리는 불 붙은 기둥으로  
끝이 나고  
그도 완전한 작별을 원한다

## 꿈 섬의 돛을 잡아라

배 돛을 잡아 올려  
반짝이는 섬들  
멀리 모래 사장 섬이 보인다  
건져 올린  
푸른 해초들  
나에겐 꿈 밖에 없다  
나의 얼굴에 피를 묻힌 반복의 손  
빨강 풀이 돌아 칼 춤을 추고  
바다 안의 침묵이 천사의 날개를 문지르며  
눈꺼풀 위에 일식을 떨어뜨린다  
배의 돛은 잡히고  
섬들은 기울어 지고  
불꽃 같은 열정의 꿈으로  
큰 꿈 별 사자자리의 별에게  
별 하나를 선사한다  
성장 깊이  
꿈 섬



## 에필로그

그릇된 것들이 많아서 답아논 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좀 더 바른 길로 가는 지혜가 되길 기원합니다.

세상이 돌아보지 않는 삶이라도 그 누구든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종이 위에 쓰는 시는  
책이 되어 남고  
사람 가슴 위에 쓰는 시는  
생이 되어 남고  
허공 위에 쓰는 시는  
쓰다 지쳐 사그러든다

팔월의 모래사장이 쓰는 시는  
바다가 쓰러 가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십이월 눈 위에 쓰는 시는  
눈이 녹아 버리며  
흔적도 없이 살아간다